

피동구조로 바뀌어 리용될수 있는 현대로어성구에 대한 분석

리 문 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교육의 내용을 잘 꾸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외국어지식을 풍부하게 줄뿐아니라 그것을 원리적으로도 깊이있게 가르칠수 있도록 꾸려져야 합니다.》

최근시기 로어성구에 대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일부 성구들에서 문장론적구조의 변화가 그것들의 현실적의미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언어행위속에서 리용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능동구조로부터 피동구조로 바뀌어 리용될수 있는 로어성구들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로어동사적성구들이 피동구조로 바뀌어 리용될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성구들이 피동구조로 변화될수 있는가 하는것은 동사가 들어간 성구들이 의미적 요소들로 갈라질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기초하고있다. 즉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의미적인 자립성을 가지고있는가에 기초하고있다.

례: сломать лед(랭랭한 분위기를 깨뜨리다, 터전을 닦다, 첫발을 내디디다)

→ лед был сломлен: объявить бой(그 어떤 현상에) 전쟁을 선포하다, (악습과의)투쟁을 선포하다, объявить бой пьянству 술풍과의 투쟁을 선포하다 → был объявлен бой

그러나 성구 бить баклуши(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다; 건달부리다)류형의 성구들은 баклуши были биты 와 같은 피동형태로 될수 없다. 그것은 лед 와 бой

는 일정한 의미적자립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어로 되여도 그 의미가 리해될수 있지만 성구 бить баклуши 에 있는 단어 баклуши 는 그 어떤 자립적인 의미도 가질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통신적기능을 변화시킬수 없기때문이다.

로어성구들의 피동구조와 관련된 문제는 성구내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 하나만으로는 설명할수 없다. 성구의 구성부분으로 되는 동사가 피동상형태를 형성할수 있는가 없는가는 피동상형태들이 리용될수 있는 일정한 문맥적조건들을 고려해볼 때에만 가능하다.

실례로 《속여넘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로어성구 обвести кого-л. вокруг пальца 는 현대로어에서 피동구조로 바뀌어 리용되지 않는다.

피동상형태를 가지는 동사들이 로어성구의 구성부분으로 되여있어도 언제나 피동구조로 바뀔수 있는것은 아니다. 때문에 피동구조로 변화되여 리용되는 해당 성구들을 자연스럽게 리해하려면 그것들이 쓰이는 일정한 문맥적조건, 정황들도 설명되어야 한다.

피동상이 쓰이면 문장론적기능도 변화지만 그보다 중요하게는 이 기능의 우에 놓이는 통신적기능이 변하므로 성구구조의 변화에서는 그 구성요소들의 의미와 함께 그것들이 리용되는 정황도 다같이 설명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로어동사적성구들이 피동구조로 바뀌어 리용될수 있는 조건들을 의미적 및 문장론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동사적성구들이 피동구조로 변화될수 있는 의미적조건은 첫째로, 그 구조속에 있는 명사적단어들이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의미를 가지고있어야 한다는것이고 둘째로,

성구속에 들어있는 동사가 타동성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적관계에서 볼 때 동사나 동사가 들어간 성구들과 같은 임의의 류형의 어휘적단위들은 원칙적으로 행동수행의 담당자인 행동의 주체를 요구하면서도 타동성의 의미를 가진 의미소로 이해되는 경우에만 피동구조로 변화될 수 있다.

성구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의미로부터 총체적인 의미가 파악되는 성구들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결합성의 정도가 강하여 그 의미를 추상할 수 없는 은유적이며 형상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진 성구들도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피동구조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로어성구들이 피동구조로 변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성구들과 동의어적인 동사들이 정상적으로 피동상으로 변화되어 리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실례로 《죽다,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умереть 가 피동상으로 리용될 수 없다는데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진 성구 отправиться на тот свет, найти могилу, угодить под ёлку 들은 피동구조로 변화될 수 없다.

그리고 로어성구가 자기의 구조속에 피동상으로 변화되지 않는 동사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피동구조로 변화될 수 없다.

례: литься(переливаться) через край(기쁨 · 활기가 넘쳐흐르다), сгибаться кольцом(머리를 깊숙이 숙이다), лёд тронулся(행동 · 운동이 시작되었다, 첫발자국을 내디디었다), биться как рыба об лёд(헛되이 노력하다, 아득바득 애쓰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본은 로어성구구조속에 피동상으로 변화되지 않는 동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동구조로 변화되지 않는 동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성구들속에서 주어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행동의 관제자 즉 활동체명사들과 주어의 위치에도 넘어가는 명사적 단어(전치사없는 대격에 놓인 단어)들이 의미적으로 직접 결합되어 리용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로어동사적성구들이 피동구조로 변화될 수 있는 문장론적조건은 첫째로, 활동체명사가 성구에 포함되어 대격형태, 드물게는 여격형태로 표현되는 경우 그것이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행동에 참가하는 대상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사적성구는 이 성구구조속에 활동체명사가 있는 것으로 하여 피동구조로 변화될 수 있다. 활동체명사는 자기의 의미문장론적특성인 격의 역할에 기초하여 볼 때 문법적주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법적주어로 되는 활동체명사는 성구의 구성부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장론적표현환경을 나타내는 요소로 된다.

례: связать по рукам и ногам кого-л.(손발을 엮어매다,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다, 속박하다) — кто-л. был связан по рукам и ногам; стереть в порошок кого-л.(박살내다) — кто-л. был стерт в порошок; взять на abordаж кого-л.(배전을 맞붙이고 공격하다; 강간하다, 겁탈하다) — кто-л. был взят на abordаж; предать анафеме кого-л./что-л.(규탄하다, 저주하다) — кто-л./что-л. был(о) предан(о) анафеме

로어동사적성구들이 피동구조로 변화될 수 있는 문장론적조건은 둘째로, 비활동체명사가 성구의 구성부분으로 되는 경우 그것이 주어의 기능은 수행할 수 있어도 행동의 담당자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로어동사적성구가 피동구조로 변화될 때 성구의 구성부분속에 있는 비활동체명사가

주어의 위치에도 이동하면서 이루어진다.

례: спутать все карты(뒤엎다, 혼란시키다) — все карты были спутаны; испортить (всю) обедню кому (방해하다,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 — вся обедня была испорчена.

이때 비활동체명사는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의미를 가지고있어야 하며 이러한 로어동사적성구는 분리될수 없는 술어로서가 아니라 규칙적인 문장론적원칙에 따라 조직된 단어결합으로서 즉 행동대상을 가진 동사적술어로서 이해된다. 해당 비활동체명사는 의미적전일체로부터 성분화되어 자체의 의미를 가지면서 행동관계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문장론적변화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주제부에 들어가는 비활동체명사가 대격으로부터 주격형태로 전환되는것이다. 로어에서 이것은 행동대상 혹은 객체 즉 직접보어로부터 주어로 문장론적기능이 변화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문법적으로 정밀하게 짜인 문맥들에서는 의미적으로 쉽게 성분화되는 성구들이 자주 피동구조로 변화되어 널리 리용되고있으며 이때 해당 명사적단어들의 자립적인 의미적잠재력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

로어동사적성구의 특징은 주어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어도 행동의 담당자로는 될수 없는 명사적단어들이 성구의 구성부분으로 되면서 문장론적으로 변화되는 조건속에서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성구속에 있는 동사들은 활동체명사보다도 성구의 구성부분으로 되는 비활동체명사들과 결합될수 있는 능력이 아주 크다.

다음으로 로어동사적성구들이 피동구조로 바뀌어 리용될 때 의미적 및 문장론적으로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적 및 문장론적으로 불균형이라는것은 성구가 피동구조로 변화

되는것이 의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문장론적으로는 의미적제약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문장론적변화를 일으키며 자주 리용된다는것이다.

의미적으로 성분화하기 힘든 동사적성구속에 있는 명사적단어들이 문법적주어로 되는 경우 의미적 및 문장론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실례로 поставить крест на ком-л./чем-л. (...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잃다·버리다·단념하다, ...를 믿지 않게 되다) → на ком-л./ чем-л. был поставлен крест 류형의 성구들을 들수 있다. 성구 поставить крест의 의미를 놓고 볼 때 그의 기초에 놓이는 은유적표현구조에 의하여 구성요소들인 поставить와 крест들은 의미적으로 자립적인 구성부분들로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해당 성구가 피동구조로 변화될수 없게 하는 의미적제약조건으로 된다.

명사적단어는 자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자기의 통신적기능을 변화시킬수 없는것만큼 구성요소 крест가 주어의 위치에도 이동하는것은 통신적성분화조건에 모순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구들이 실지 언어행위에서 문장론적으로 변화되어 널리 리용되고있는것은 이 성구들이 피동구조로 변화되는것이 문장론적으로는 크게 제한을 받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명백한것은 명사적구성요소가 주어의 위치에도 이동하는것이 그의 통신적기능을 변화시키지 않는 순수 문장론적인 변화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여기에서 행동의 주체로 되는것은 이 구성요소가 아니라 대상의 결합성을 나타내는 행동수행자 혹은 그 어떤 다른 문장성분이다. 즉 어음론적으로 중성적인 진술(На Иване Ивановиче был поставлен крест)과 어음론적인 특징(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 등)들을 명백히 요구

하는 진술 (Крест был поставлен на Иване Ивановиче)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문제는 구성요소들의 배열순서(어순)(был поставлен крест와 крест был поставлен)가 아니라 바로 문법적주어의 위치이다. 즉 крест был поставлен의 어순이 아니라 구성요소 крест가 해당 문장에서 주어로 되면서 자기의 통신적기능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성구의 문장론적변화에 요구되는 특수한 조건으로 된다는 것이다.

구성요소들의 이러한 배열순서는 문법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성구 전체가 주제부로 될 때 실례 (1)에서처럼 수많은 전개 성분들이 설명부를 이룬다.

례: (1) Несколько раньше крест был поставлен на Ен Чхоре, Ен Наме, Ен Су. (얼마전에 제외된 사람은 영철이와 영남, 영수였다.)

우와 같은 문맥들에서는 통신적기능을 가르는데서 일정한 제한을 받고있다. 그것은 중성적으로 쓰인 실례(2), (3)과 룡담적인 측면이 들어있는 문맥들인 (4)와 (5)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례: (2) Выпускников физ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пытались завербовать в полицию. Исключение составляли единицы, вроде меня, которые уже успели пострадать от полиции и на которых был поставлен крест.

(실지로 체육학부 졸업생모두를 경찰서에 모집하려고 시도하였다. 레외로 된것은 나를 비롯하여 이미 경찰서의 피해를 당해보았고 명단에서 제외된 극소수의 사람들 이였다.)

(3) Неизвестно, был ли у Наташи талант врача, но мечталось ей

стать и авиаконструктором. <...> А еще будоражили воображени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фильмы. <...> На карьере врача крест был поставлен быстро и бесповоротно.

(나따샤에게 의사의 재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항공설계가로 되는것도 공상하였다. ...그런데다가 예술영화들까지 공상을 부채질하였다. ...의사로 발전하는 길은 인차 그리고 확정적으로 배제되었다.)

(4) На этом человеке окончательный жирный крест был поставлен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клубе случился пожар: сгорело несколько эллингов вместе со всем снаряжением. <...> (이 사람을 최종적으로 확고히 제외시킨것은 모든 장비들을 포함한 일부 비행기격납고들을 다 태워버린 화재가 구락부에서 발생한 이후였다.)

(5) Целая стопка журналов стоит на моем столе и все беленькие и пушистые, но только последний номер стал черным и жирный крест был поставлен на нем.

(웅근 한뫼음의 잡지가 나의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 모든 잡지들이 다 희고 보풀져있었는데 마지막부만은 수정가필을 너무 하여 새까맣게 되어있었고 부결표식이 진하게 그어져있었다.)

문맥 (4)와 (5)에서 룡담으로 이러한 구조를 사용한것은 성구구조속에 표준이 아닌 규정어가 들어가는것으로 강조되고있다.

우리는 로어성구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학생들이 언어실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